

2024년 가을 학기
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—
갈라디아서

메시지 11
두 언약을 상징하는 두 여자

성경 말씀: 갈 4:21-31, 창 16:1—17:14

- I. 아브라함의 아내와 첩인 사라는 하갈은 두 언약, 곧 약속의 언약과 율법의 언약에 대한 비유이다 — 창 16:1—17:14, 갈 4:21-31.
- A. 자유가 있는 여자인 사라는 약속의 언약을 상징하는데, 약속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인 새 언약에 관한 것이다 — 갈 4:23-24, 창 12:7, 15:7-21.
1.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,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이 그 씨를 갖기 위해 어떤 것을 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없었다.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으로 무언가를 일해 넣으셔서 아브라함이 씨를 산출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게 하셨다. 이것이 은혜이다 — 창 15:4.
 2. 자유가 있는 여자인 사라는 아브라함의 합당한 아내로서 은혜의 언약을 상징한다.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를 낳았다.
 3. 은혜의 약속의 산물인 이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씨이다 — 창 17:19, 21:12 하.
- B. 여종인 하갈은 율법의 언약을 상징한다 — 갈 4:24-25.
1.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은 율법을 상징한다. 이로써 우리는 율법의 위치가 첩의 위치와 같음을 알 수 있다 — 창 16:1-3.
 2. 하갈로 상징된 율법의 언약은 하나님의 선민을 율법의 노예 노릇과 속박에 들어가게 하여,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분리시켜 율법 아래 있는 노예들이 되게 한다 — 갈 4:25, 5:1, 4.
 3.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사람이 율법과 협력하여 육체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사람의 시도를 상징한다 — 창 16:4, 15-16, 갈 2:16, 4:23 상.
 4.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육체에 속한 노력으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다. 그러므로 율법에 따른 사람의 육체에 속한 노력의 결과인 이스마엘은 하나님에게 거절당했다 — 창 17:18-19, 21:10, 갈 4:30.
- C. 우리는 갈라디아서 4 장 21 절부터 31 절까지를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체험의 빛 안에서 살펴보아야 한다.
1. 갈라디아서 4 장 21 절부터 31 절까지에서 바울은, 하갈이 땅에 속한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율법을 상징하고, 사라는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은혜를 상징함을 말한다 — 갈 4:25-26.
 2. 하갈과 사라는 각각 두 언약, 즉 율법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을 대표한다 — 갈 3:26, 4:6.
 3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원래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었다.
 - a. 이 언약 안에서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— 갈 3:29.
 - b. 이 언약은 새 언약과 동일하다.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실지로 은혜의 언약임을 의미한다 — 히 8:7-8.

- D. 갈라디아서 4 장은 믿는 이들의 어머니, 즉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은혜의 새 언약임을 계시한다 — 히 8:7-13, 12:22-23.
1. 우리는 새 언약 아래 태어났으며,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이다 — 갈 4:26.
 2. 이 여자는 새 언약이고 우리의 어머니이며, 우리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은혜이다.

II.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— 요 1:17.

- A.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다 — 딤후 1:9, 딤텔 2:11.
- B.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얻은 그 영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다.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사람들의 누림을 위하여 사람들 안으로 하나님을 분배하는 은혜의 청지기 직분이다 — 요 1:17, 행 20:24, 엡 3:2.
- C.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다 — 요 1:17, 고전 15:10, 비교 갈 2:20.
- D. 하나님의 경륜 안에, 은혜 아래 있는 믿는 이들의 생활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은혜로서 체험하는 총체적인 생활이다 — 갈 6:18, 히 4:16, 계 22:21.
 1. 그리스도인 생활은 반드시 은혜의 생활, 즉 은혜를 체험하는 생활이어야 한다.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은혜이신 하나님을 갖는 생활이다 — 고후 1:12.
 2. 총체적인 생활이란 우리의 생활 전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기 위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생활임을 의미한다 — 고후 13:14.
 3. 복합되신 영은 우리 안에서 매일 기쁨 바름으로서 움직이시어 우리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은혜로서 누리게 하신다 — 요일 2:20, 27.
 4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, 즉 은혜의 영은, 거듭나서 삼일 하나님의 거처이자 삼일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된 우리의 영과 함께하신다 — 히 10:29 하, 갈 6:18, 빌 4:23, 몬 25, 딤후 4:22.
 5.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. 은혜는 삼일 하나님 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아버지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실재화되신 아들 — 이다 — 고전 15:45 하, 6:17.
 - a.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하시는 것은 은혜가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것이다 — 딤후 4:22.
 - b.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킬 때 하늘의 문을 통해 들어가, 하늘에 속한 사다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를 만진다 — 히 4:16, 창 28:12-17, 요 1:51, 엡 2:22.
 6.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들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하나님 자신의 넘쳐 흐르는 풍성들이므로 모든 제한을 넘어선다 — 벰전 5:10.
 7. 은혜는 우리와 하나 되시고, 우리를 구원하시고, 우리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고,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시는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이다 — 골 3:4, 엡 2:8, 3:17, 갈 4:19.
 8.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증가함으로써 자라는 것이다 — 벰후 3:18, 골 2:19.
 9. 겸손은 은혜이신 하나님을 불러온다. 우리가 겸손할 때, 하나님은 은혜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— 벰전 5:5-6, 약 4:6.
 10. 우리는 성도들이므로,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의 일상생활의 각 방면에서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 — 계 22:21.